

중요함

사기. 관동 14 부군
김복동 - 7방면군.

김복동 할머니(피해자)

1. 연행동기: 1941년 봄 아니면 가을쯤에 군복공장에 간다고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해서 데려감. 누가?
2. 끌려간 곳: 관동, 홍콩- 제 23군(지나 파견군)
싱가포르, 스마트라- 제 25군(남방군)
스마트라,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자바 제제 7방면군
*남방군, 제 7방면군 중에서도 제 16, 25, 29군 그중에서도 25군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천황-대본영-남방군이 관련되어 있다.
3. 패전후 처우에는 제 7방면군 사령부, 제 10 육군병원, 미군수용소가 관련되어 있다.
4. 문제: 시기, 지명이 구체적으로 자세하지 않다.
김복동 피해자의 군속이었던 형부의 창씨한 이름(방위청에서 명단을 찾았다)
미군 camp가 있던 지명
5. 김 복동 피해자가 간 경로: 버스로 부산→배로 시모노세키→화물선으로 대만→광둥(여기서 위안부 생활)→홍콩(3개월)→트럭이나 배로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자바로 이동
6. 위안소명: 코아 또는 고아 CLUB
7. 관리인: 일본에서 자란 40대 한국인이고 형님이라 부름, 위안소에서는 일본말 사용
8. 피해자의 창씨명: 가네무라 후유크, 요시코
9. 패전직후: 싱가포르에서 있었다. 제 10육군병원에서 간호부 훈련, 형부를 만나 미군 수용소로 가서 최후의 귀국선을 타고 나옴
?

*상세한 설명

1) 광둥 위안소: 1938년 말 광둥공략 작전후 광둥부근에 경비체제를 한 제 21군(波集團 파 집단)이 개설한 위안소에 1941년 후반 수용되었을 것 (이때는 제 23군으로 편성)

공동위안소: 대본영이 남경함락(1937년 12월)후 1938년 말 무한 공략작전을 방동, 이와 평행해서 실시된 것이 광둥공략작전(이 작전은 9월초 대본영 어전회의-일왕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

이 작전 때문에 1938년 9월 19일 제 21군이 편성됨. 사령관이 古莊幹郎(후루쇼모토오)중장(대만군 사령관)이 임명됨.

제 5, 제 18, 제 104 사단의 3사단으로 구성된 제 21군은 해군 제 7함대의 협력을 열어 광둥부근 요지에 들어갈 작전이 됨. 10월 21일 거의 저항없이 바이다스만에 상륙. 이때 제 18사단 久納誠-사단장, 제 104사단 三宅後雄은 광둥으로 돌진, 10월 21일에 제 18사단 安藤利彦(안도토시히코?)와 11월 9일 이후는 今井均(이마이 ?)이 광둥을 점령함.

제 5사단도 22일 광둥 남쪽 虎門부근 상륙

광둥점령후: 제 21군의 각 부대가 광둥부근에 모임. 경비체제에 들어감.

광둥지역에는 적어도 위안소가 1939년 4월경까지는 설치된 것은 제 21군 사령부 「戰時旬報 전시순보」 4월 11-20일(요시미 교수발굴)에 의해 확인됨.

위의 전시순보에 의하면(이하 인용문)

「六 기태 二. 위안소 상황

1. 위안소는 소관경비대장과 헌병대 감독밑에 경비지구내 장교이하를 위해 개업한다.
2. 약
3. 현재 중업부수는 약 천명내외로 군이 통제하는 자 약 850명, 각 부대 고향에서 데려온 자 약 150명으로 추정됨. 이외에 제 1선에서는 위안소 설치가 곤란하여 현지의 것을 사용한 것도 약간 있음.
4. 위안소의 배당과 위생상태는 별지와 같음.

위안소의 배당과 위생상황

구분	장소	위안소 인원수	성병백분율
軍直部隊군직부대	시내	159	28%
久納兵団구납병단	광둥시 서부	223	1%
浜本兵団빈본병단	광둥시 동부	129	10%
兵站部隊병참부대	강남	122	4%
佛山支隊불산지대	불산	41	2%
飯田支隊반전지대	해구	180	
합계		850→854	

비고: 이상은 헌병주둔지의 것만, 이외에 삼수(三水), 구강(九江), 관?(官?), 증성(增城) 석류(石流) 등에도 있었으나 극히 위안부가 소수여서 파악하기 힘들.

구납병단(광둥시서부)=18D 久納誠-중장(1938년 7월 15일, 40년 2월 10일)

빈본병단(광둥시동부)=104D 浜本喜三郎 중장(1938년 11월 17일-40년 12월 2일)

니시모 루미코(西野?美子) 저 「중군위안부와 15년전쟁」 (관둥위안소에 대한 증언)

증언(1)

제 18사단 포병부대 군조 野村式(노무라타케시)의 증언(1993년 증언당시 후쿠오카캠프에 살고 있었음)

담수(淡水)에 있던 위안소는 본시 흙담으로 둘러싸인 형무소였는데 우안소로 만들었다.

광둥뼈와 조선뼈가 많았다. 50명이 있지 않았을까?(兵士)가 외출할 때는 허가서와 콘돔이

주어졌다.

중언 (2)

야전중포병(野戰重砲兵)이었던 小團清는 1939년 4월 군직부대=군직할부대에 있었다.

광동지역에는 위안소가 많았다. 민가를 접수하기도 하고, 이중짜리 관청을 위안소로 만든 것도 있었다. 그곳에는 3명쯤되는 조선인 남자가 각각 50명쯤되는 조선인 위안부를 관리. 그곳만해도 100-150명의 위안부가 있었다. 요즘은 병사가 한시간 2엔, 하사관이 3엔. 장교는 5엔쯤 되었을 것. 내가 기억하는 위안소는 베니아판으로 칸을 막은 곳, 한칸에 위안부가 한사람씩, 거의 전부 조선씨였다.

「대만 쿠냥」과 「광둥씨」가 있기는 했다. 한번 조금 알게된 후 물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오게 되었을까?」고 그녀는 「간호부 보조역」 모집이 있어 응모했더니 위안소로 집어넣어졌다고..

거의 전부가 18-21세 정도의 젊은 여성, 위안소의 이름은 "신마치위안소" "히가시야마위안소" (서울 지금의 을지로 입구 근처의 홍등가의 이름도 이것이었다.) "백운위안소" "하남위안소" 아주아주 많았다.

1941년 6월 25일 제38사단장교대 (藤井洋治→佐野忠義 중장으로)

1941년 광동에 도착한 김복동등 20명은 포장이 찢겨진 트럭으로 위생병원 같은 곳에 끌려가 전원이 군의의 성병검사를 받음. 꽤 걸어서 철도 옆에 위안소에 넣어진 낮에 검진 받은 그 군의에게 강간당함. 자살기도. 그러나 결국 위안부가 됨.

위안소에는 김복동이 도착했을 때 이미 10여명의 여성이 있었음. 따라서 김복동등 20명을 합해서 30명이 됨. 이때 중국여성 1명을 빼고 전원 조선인.

건물: 가운데 통로. 양쪽에 방. 방에는 번호와 위안부 이름. 방이 30개

밖에 나가지 못했고, 외출시에는 감시 군인이 따라갔다. 위안소에는 일본인 군인뿐.

군인은 입구에는 표와 콘돔을 받았다. 관리인은 부산에서 그녀들을 인솔했던 조선인 평일 오후 12:00-5:00와 일요일 아침 8:00-5:00까지는 병사, 밤 7:00-(아침까지도 가능) 장교.

주장 1회 성병검진

김복동 피해자가 끌려갔던 1941년 후반경 광동부근을 경비하고 있던 지나파견군(총 사령관:火田後六對象) 밑의 제 23군(사령관: 今村均)

중장 1941년 6월 28일-11월 6일→사령관 酒井隆(주정용)41년 11월-43년 3월 1일)중장이었다.

중언3) 보명 제 70연대 香川弘三

주둔하는 부대가 가는 위안소는 광동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개조한 위안소.

교문근처에 작은 박스가 있고 그곳에 조선인 남자가 하모니카를 불며 앉아 있었다.

1941년 6월 25일 제 38사단장교대(藤井洋治→佐野忠義 중장으로)

1941년 7월 5일 남지나 방면군의 전투서열을 풀고, 제 23군에게 그 임무를 맡기며, 제 25

군을 편성해서 남부불인(지금의 베트남)으로 진주
1941년 8월 12일 제 23군은 지나파견군 예하로 들어감.

아시아태평양전쟁때의 남방작전과 위안부 정책

초기작전을 위한 일본군의 부서(육군)

남방군 사령관: 테라우찌 대장

제 14군 本間雅春 중장 필리핀 공약작전 16D, 48D, 65B, 외

제 15군 飯田祥二郎 중장 태국안정, 미얀마 작전준비, 33D, 55D, 주력기관

제 16군 今村均 중장 蘭印作戰(북 수마트라) 2D, 56B

제 25군 山下奉文 중장 싱가포르, 북 수마트라 공략, 고노에사단, 5D, 18D 주력
56D

川口支隊 川口清健 소장 영영(영국소유) 보루네오 요지 공략 35B기간

제 3비행집단 菅原道大 중장 말레시아 방면 항공작전

제 5비행집단 小畑英良 중장 필리핀 방면 항공 작전

남해(南海)지대 堀井富太郎 소장 광공략

지나파견군 제 23군의 일부 홍콩 공략

대본영 예비 제 4사단

대미영란전을 앞두고 일본 육군성은 위안소 설치에 적극 나선 것을 알 수 있다.

(요시미 요시아라 하야사 하토후미 1996 22-24)

공문서 金原節은 육군성 의무국 医事課長의 업무일지에 보면 네덜란드령 인도네시아를 비
밀리에 시찰한 군의 少佐가 강간 방지와 성병만연 방지를 위해 위안소를 인도네시아 점령후
설치하고 촌장에 배당을 주어 위안부를 징집할 것을 육군성에 제안하고 있따. 실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 직후 일본군이 동남아시아로 점령지를 넓혀 나가는 와중 1942년 1월 「남방방
면점령지에 있어서 군측의 요구에 의해 위안소 개설」이 요구되었다. (요시미 1990. 142)
이에대해 42년1월 東郷茂徳외무대신이 업자 · 위안부의 도항을 여권이 아니라 군의 증명서
로 행할 수 있게 지시한 것으로 미루어 <이때부터 군의 증명서가 없으면 적어도 동남아시아
· 태평양 지역에는 정대 갈 수 없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 ·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후 위안부 정책에 대해 군관리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육군 중앙은 남방군(사령부, 싱가포르)에 1942년 1년동안 645만개의 위생악구(콘돔)을 보
냈다. 또한 싱가포르 현지에서도 콘돔을 만들었다. (하야시, 1993)

제 23군과 홍콩위안소

1941년 10월 5일 杉山전 참모총장이 대 미영 네덜란드 전쟁에 따른 제국육군작전계획과
작전준비를 상주하고 재가가 나옴(대신, 국회, 관청등이 일왕에게 ??을 아뢰)

다음해 10월 6일 홍콩공약작전에 관한 대명(대륙명 제 557호)

1941년 12월 8일 아시아태평양 전쟁 발발

1941년 12월 25일 홍콩을 점령

1941년 12월 29일 제 23군의 佐野 사령관은 군전투사령소를 폐쇄하고 군정청을 발족시킨

김복동 할머니

1942년 1월 19일 중령점령지 중독부가 편성되고 중통에 磯谷兼介 중장, 참모장에 有末次大佐 임명됨

홍콩방위대: 장, 足立重郎 소좌. 독보 67,68,69와 홍콩 포병대가 달음

홍콩 공략작전의 주력은 제38사단이다. 이 사단은 제23군 사령관의 명령으로 「南方離島作戰」을 위해 1942년 1월 떠나 인도네시아 작전에 투입됐다.

〈 김복동 할머니는 광둥에서 홍콩으로 트럭으로 끌려왔다.〉 할머니가 있던 위안소를 관리한 군대는 제38사단인가 홍콩방위대인가.

제25군과 싱가포르 위안소

김복동 할머니는 홍콩에 3개월 있다가 싱가포르로 갔다고 한다. 「군인을 따라서」라고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제23군하에서 광둥을 경비하고 마레·싱가포르 작전에 투입될 제 18사단(장, 牟田口廉也)일 것이다.?

(1) 싱가포르 경비대 (대장, 제5사단의 川村参郎 소장)

(2) 近衛사단 (西村琢磨 중장) 시내를 뺀 싱가포르섬의 해안임무

(3) 제18사단(牟田口廉也中將)은 조호-르주로 이동해서 동주의 치안경비

(4) 제5사단은 조호-르주를 뺀 마레-반도 「마레-진공작전: 631」 「하야시 1992년 59」

김복동 할머니가 있었던 위안소가 싱가포르에 어디 있었나?

제 25군과 마레-반도 위안소

김씨는 때때로 깊은 산속에 있는 군부대까지 갔다고 증언, " 군인이 호위해서" "포장을 내린 채 트럭에 실려서" "일주일정도 출장"했다고 증언.

텐트를 치고 그 속을 함판으로 칸막이하고 3,4명 드러갈 수 있게. 위안소 책임자가 그 부대에 따로 있었다고 증언, 무슨 뜻?

마레-반도 각주의 주요도시에는 일본군이 주둔했고 위안소가 설치되었다. 병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곳에는 중국 여성이 많았다. 그러나 김씨 증언 같이 부대 요청에 의해 임시 출장위안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작전과 제25군 관할하의 스마트라 등의 위안소

김씨는 싱가포르에서 수개월 지냄. 라유의 현지가 스마트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자바였다.

마레 작전이 끝난 후 제 25군은 남방군에서 마레 반도의 안정과 중·북부 스마트라 등의 요지를 점령할 임무가 생겼다. 3월 12일 동군군위사단은 중·북부 스마트라 작전을 실시해서 일주간에 주요지역을 점령. 또 남부 스마트라는 2월 중순에는 제 38사단 주력에 의해 점령됨. 홍콩 공략 작전 주력이었던 제 38사단은 홍콩작전이 끝나 후 1942년 1월 14일 인도네시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 16군(사령관, 금촌약)에 가세하고 있었다. 3월 9일 남방군은 스마트라 전역을 제 25군의 작전지역이 됨. 그래서 3월 12일부터 제 38사단동의제 16군부터는 제 25군의 지휘 아래 이르렀다. (남방 방면 육군 작전 :6)

1942년 5월경 제 25군 주요부대의 배치, 제 25군 사령부는 싱가포르에 있었다. 마레-반도를 제 5사단이 중·북부 스마트라를 군위사단이, 남부스마트라를 제 38사단이 각기 경비, 즉 마레-, 스마트라를 지역의 경비를 맡은 군은 제 25군이었다. 따라서 김복동 할

머니가 싱가포르에 수개월 있었다. 그리고 다음에 수마트라에 갔다는 증언은 위와 같은 인도네시아 작전과 그 후 말레이아-수마트라를 관할지역으로 한 제 25군의 부대배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조자료 있음. 본문 9쪽

중요증언 스마트라의 빠른 방에서 헌병으로서 위안소에 관계했던 金富之助의 [싱가포르에 가는 길]에 보면 {순회의 의무로서 출입하고 있는동안 나는 케이코와 와이코라는 조선여성(이건물은 전부 조선여성)과 얘기를 잘 하게 됨.

{우리들은 조선에서 중군위안부·여자정신대·여자근로봉사대라는 명목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설마 위안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고 증언.

남방군정과 위안소

1942년 7월이후 남방군정의 전개와 전국이 위안부 정책과 관련된다.

[남방점령행정실시요령]은 전쟁직전의 1941년 11월 20일大本영 정부 연락회의 결정에 의해 정해진 것.

군정의 목적: 치안회복, 중요자원의 급속획득, 작전군의 자활확보

그 주요 목적은 전쟁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위시해서 중요장원 확보에 있었다.

하야시 교수에 의하면 처음 위안소 개설, 관리, 위안부 모집은 병참이 했으나 위와 같이 군정기구 개편에 의해 1942년 7월경에 위안소 관리가 군정기구에 이관된 것으로 추측.

마레-군정감부[전시월보(군정관계)], 1943-1944 2월 29일에 위안소에 [위생콘돔(악구) 배급 상황이 기재되어 있음]

1943년 11월 30일 군정월보개칭

1943년 7월-11월, 1944년 2월분 식구계 17만 55000개 총알 182일이므로

1일당 964개, 1944년 21개월(위안부에 따라각주에 배울)

1일당 2500개

신 남방군 중사령부와 제 7방면군 창설

大本영이 새로 7방면군의 전투서열을 명함

남방군 제 2방군 제 2군:

제 18군

제 19군

제 7방면군: 土 ?原室=대장

제 16군

제 25군

제 29군(보루네오 수비군)

버마 방면군

제 15군

제 28군

제 14군
인도지나 주둔군
태국주둔군
제삼항공대
제4항공군
남방군 직속부대

참모장 清水規矩(시미즈) 중장(군정감을 겸임)

참모부장 磯村武虎소장(군정감부 총무부장 겸임)

남부군 중사령부는 1944년 5월 싱가포르에서 마닐라로 옮겼으나 선박유송 업무, 중추는 싱가포르에 남아 있었다.

제 7방면군 전투서열(1944년 7월~)과 병역배치(1944년 4월 15일)

제 7방면군: 군사령관=土?原室二 대장

제 7방면 사령부 사령부: 싱가포르

제 16군: 原田態吉 중장 자바방면

제 16군 사령부 사령부: 자카르타

独混(독혼)27여단: 서자바

独混(독혼)28여단: 동자바

제 25군 군사령관=田?盛武 중장 수마트라 방면

제 25군 사령부 사령부:부키징키(ブキチンギ)

근위(近衛) 제 21사단 북(北)수마트라

제 4사단 중(中)수마트라

独混(독혼) 25여단 북서수마트라

独混(독혼) 26여단 남수마트라

제 29군 군사령부 사령부 타이핑(タイピン)

独混(독혼) 35여단 안다망(アンダマン)섬

独混(독혼) 36여단 카니코발(カーニコバル)섬

独混(독혼) 37여단 남코리(ナンコーリ)지구

独混(독혼) 12독립수비대 말레(マレー)지구

独混(독혼) 18독립수비대 싱가포르(シンガポール)지구